

# 욕망의 무도회장



**주식** 시장은 무도회장이다. 증권당국의 음악 연주 속에 투자가와 증권사가 서로 파트너가 되어 춤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주식시장은 제대로 숙달되지 않은 음악연주에 다 춤췄던 서툰 투자자들이 이기적인 증권사의 품 안에서 어설픈 춤을 추고 있는 양상이다. 연주는 다소 즉흥적이어서 언제 곡조가 바뀔지 알 수 없고 파트너인 증권사는 언제 뒤돌아설지 몰라 춤꾼인 고객은 춤을 망치기 꼭 알맞다. 최근 우리 증시는 춤바람 난 춤꾼들로 붐비는 무도회장 같이 온갖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함께 겪었고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김진홍씨는 신문구절을 큰 목청으로 두번 되풀이해서 읽었다. 차장의 책상을 둘러싼 채 온통 주가 얘기에 골몰해 있는 동료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비은행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진단니까요. 만오천에 팔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연일 상종가를 치

더니 오늘 아침 장세에선 드디어 이만사천원으로 진입했다 이거예요. 오백주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사백오십만원을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일이었다……”

“김형은 매사에 조금만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무렵 충고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붙들고 있으라고요.”

“아 그거야 정형같이 여유자금이 풍부한 사람 얘기죠. 나야 어디... 작년 9월부터 대통령 선거 전까지 주가가 계속 바닥을 맴도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누라 결혼반지에서 아이놈들 돌반지까지 몽땅 팔아 투잡했는데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와 질수록 우수수 추풍낙엽이라. 내 돈이 죄다 휴지조각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니까요.”

“난 그때 김형이 우스웠어요. 아니 집안의 돈을 몽땅 증권에다 투자해 놓았으면 양김씨 어느 쪽도

주식株을!



편들지 말아야 하는데 그때는 입만 열었다 하면 O S편이라. 아 그 양반은 '나는 증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벽창호였는데... 그때 그 양반이 되었다라면 다 된 죽에 코 빠뜨리거었을 거요."

"그 무렵만 해도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 명분을 앞서지는 못했어요. 정말 지나고보니 그때는 왜 그리도 흥분을 했었던지... 그건 그렇고 정형. 지금이라도 무역주를 타면 재미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암, 봅니다. 봐.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천원씩은 더 먹을 수 있을텐데요."

이번에는 정형보다 계장이 빨랐다. 주식투자의 선두주자인 계장은 2년 전에 이미 증권계에 입문했는데 그동안 천만원이었던 투자액이 세배로 늘려져있다 하였다.

"계장님 말씀이 옳겠지만 그래도 신문을 보면 공산권 교역확대 문제도 풍문처럼 장미빛이기만 할 수

없다는데요. 수익성의 여부는 아직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말입니다."

"아 지금 증권관이 어디 원리원칙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김형은 소심해서... '이제 주가이론은 경제학의 영역을 벗어났다. 심리학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이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MIT대학 새뮤얼슨 교수의 말까지 나온 참인데."

계장은 혀를 찼다.

"이제 주식은 가히 국민 스포츠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이런 마당에 구상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답답한 사람들인 것이죠. 돈이라는 것도 그것을 붙들려고 준비운동하고 대기하는 사람들한테나 잡혀주는 것이죠.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정형의 말이었다.

김진홍씨는 신문에서 눈을 돌리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아내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당신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꼭 십년 전에도 한 밀천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은 사람이 몸담아 사는 집을 투기대상으로 삼아서 안된다 으름장을 놓았었지요. 그 무렵 아파트를 몇 번씩 옮겼던 동창들이 재산을 몇배씩 늘렸는데 우리는 내내 제자리걸음이었지요. 평생원남편 만나 할 수 없다. 체념하고 살았는데 이제 더는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 영혜는 삼천을 투자해서 육천으로 불러놓았다지 않아요. 어디 영혜 뿐이게요. 옆집 준호엄마는 며칠 전 생일에 남편한테서 승용차를 선물받았는데 그 승용차란 것이 준호아빠가 건설주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금의 일부라는 거였어요. 정말이지 이제는 동창회에 나가기도 싫어졌다니까요. 다른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내 형편이란 조금도 달라질 줄을 모르니 말이예요.

그때 김진홍씨는 냅다 고함을 쳤다. 요새는 어딜 가든지 돈놓고 돈먹는 노름판이야기라니. 귀를 막는 시늉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던 때문이었다.

이즈음은 어느 장소에서건 상종가, 하종가 이야

기 뿐이라는 것이 진저리쳐지도록 역겹지 않았던가. 식당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구내 다방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동창들끼리의 회식에서도 화제 거리는 오직 증권시장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었다.

불과 두어달 전부터는 김진홍씨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없이 얼마씩의 이익을 보는 듯했기에 소외감마저 맛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였다.

‘나는 현실감이 결여된 것이 아닐까.’

그런 의문까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비애라. 왜냐하면 지금의 이수리장같은 주식시장에 전혀 발 디딜 것 같지 않던 몇몇 동창들까지 어느덧 입문을 해서 오술같이 두배씩의 이익금을 챙겼다는 것 때문에 더욱 아연한 느낌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글쎄 우리같이 뭉스런 사람들이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을 것도 아니겠고... 앞으로는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으리란 얘기를 듣다보니 연습삼아 한 건 해보고 싶어졌어. 자네도 시작해보는게 어떨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고향친구인 고등학교 국어 선생 이정태였다. 그때의 심정은 ‘정태! 너마저도’ 였었다. 동창들 중에서 가장 생각이 비슷했으므로 모든 관심이 경제로 집중되는 현실이 마뜩잖을 때마다 둘은 그것을 개탄하며 소주잔을 기울여 온 터였기에 더욱 그러했던 것이었으리라.

기실 이정태나 김진홍씨는 결코 부유한 편은 못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집한칸 마련 못한 채 살아가는 처지들은 아니었다.

물론 그 집 한칸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내핍생활을 했던 형편이었고 이제는 얼마쯤의 저축금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김진홍씨는 한번도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맛보지 못했던 터가 아니었던가?

아내는 오직 모든 것은 집마련을 한 뒤에 라는 명분으로 김진홍씨의 소비생활을 관리해 온 것이었다. 담배값, 점심값, 차비 그리고 최소한의 잡비. 조금의 낭비조차 허용되지 않는 생활속에서 감정은 제 기능을 잃어갔던 거였다.

생활은 없고 생존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 생각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의 김진홍

씨는 집마련 뒤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해 나가겠다 다짐하곤 하질 않았던가.

김진홍씨가 바라는 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피곤하거나 사람멀미에 시달리고 싶지 않을 때면 마음 졸이지 않으며 택시를 타는 것. 좋은 연극을 가족과 함께 보러가는 것.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와 안주값에 신경쓰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 아! 또 그리고 꽃가게 앞을 지나다 불현듯 마음이 내키면 아이리스 한다발쯤 주저하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김진홍씨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어 온 터였다. 그런데 주식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아내는 달라졌던 것이다.

“좀 더 저축액을 늘려 논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



이 좋겠어요.”

아내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불품없나를 날이면 날마다 입에 올리는 참이었다.

“잘만하면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승용차 한대를 사고 그 유지비로 쓸 뭇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잖아요. 그러니 제발 여보, 이번에는 나서주어요. 당신 엄명만 아니라면 내가 진작에 나섰을 거예요.”

아내는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날이면 날마다 그 말을 되풀이하였다.

담배를 비벼 끈 김진홍씨는 왼손으로 양복 오른 쪽 주머니를 슬몓 더듬었다. 안주머니에는 어제밤 아내가 건네 준 돈이 들어 있었다.

“구좌를 개설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점심시간에라도 나가서 입금을 하도록 하세요.”

아내는 아침에 대문을 나서서 그의 등에 대고 당부하듯 말하였다. 그런데 그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그 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창 달아 올랐다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웬지 계속해서 불안했고 또 자신 역시 발을 던지기만 하면 그 일에 몰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구심 때문이었다.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을 누를 수 없었다. 이 시대 사람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나 또한 유일신으로 황금을 받아 들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김진홍씨는 머리를 저었다.

‘아직은 괜찮아. 왜냐하면 이제 막 전국 곳곳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형편이니까. 얼마나 문외한들이냐 하면... 어제는 글씨 객장에서 ‘나는 소매가 아니라 도매로 주식을 살 사람이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내 옆의 어떤 아주머니는 상한가까지는 어디서 귀동냥을 했던지 상한가보다 더 비싼 값으로 주식을 사달라고 주문을 하더라니까. 그러니 조금 더 상승기류를 탄 뒤에 빠지면 될테지.”

부장의 말에 사람들은 꺾꺾 소리높여 웃었다.

김진홍씨는 마침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아내의 소원이니까 입금이라도 시켜 놓아야겠다고 작정한 채.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조금 더 상승기류를 탄 뒤에’ 때문이었을까. 그의 걸음은 여느 때보다도 빨랐다.

객장안의 그 지독한 인파를 겨우겨우 헤치고 드디어 창구직원 앞에 앉은 김진홍씨는 ‘예탁금은 얼마 시죠’ 하며 조급한 어조로 묻는 여직원의 말에 칠백만원입니다. 쑥쓰러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지갑은 없었다.

그렇리가.

이곳으로 들어 오기 직전에도 확인했던 지갑이었다. 김진홍씨의 당황한 눈길은 객장의 곳곳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소매치기를 조심하시요’ 건너편 벽의 먹물 글씨가 눈을 파고 들었다. (㉞)



### 김 향 숙

- 1951 : 부산출생
- 1973 : 이화여대 문리대 화학과 졸업
- 1977 :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기루야 어디로가니」 당선
- 창작집 : 「겨울의 빛」 장편소설 「유리의 초록수첩」 등이 있음.

